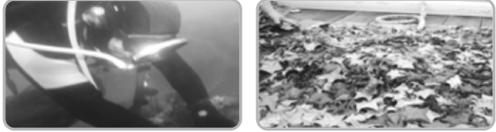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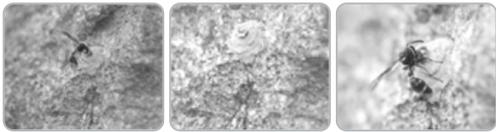


박근호의 바다이야기



▶날짜 : 2013년 6월 23일 (일) 오전10 시 ~ 오후2시
▶참석자 : 전치수, 박근호, 이상록, 한국해양구조단대원
▶장소 : 신월동 해안도로 요트정박장 ▶수심 : 6~9m
▶활동 : 연안주변 수중생태조사 /불가사리 수중정화

김혜진의 자연이야기 - 호리병벌의 모성



더위와 장마의 시작되기 전까지 호리병벌의 어머니 바쁘습니다.
내년에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 집 자를 터도고르고,
호리병 속에서 성장할 아기들의 먹이도 사냥해야하고,
집도 지어야 합니다.
그 모습 우연히 만나 우리 푸름이들과 잠시 관찰하였습니다.
내년까지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곳을 찾아
어미벌이 집을 만들었습니다.
벌의 아가가 먹음에ებლე 마취하여 호리병집속에 넣고 있는데,
주변의 어수선힬함으로 잠시자리를 비웠습니다.
일본일초가 아쉬운 어머니는
그사이 진흙을 물어와 마감을 하네요!
어미의 모습을 조심스레 관찰하기 위해
조심조심 움직였던 푸름이 친구들 모습에
잠시 웃음 지어봅니다.^^

시선집중

암 20여명 사망, 이 마을에 무슨일이

울촌면 산수리 봉두마을 앞 뒤로 송전탑 20여기
전자파 국제 허용치 4배 초과 ... 한전 "이상없다"



◀ 울촌면 산수리 봉두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고압 송전탑. 마을 주민은 이 때문에 암과 뇌출혈로 20여년간 20여명이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송전탑 20여기로 둘러싸인 마을이 있다. 이 마을에서는 20여년 동안 20여명이 암과 뇌출혈로 사망했거나 지난한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기르던 소와 염소는 물론 생명력이 질기기로 유명한 벌들도 버티지를 못하고 죽어 나간다. 울촌면 산수리 봉두마을 이야기다.

이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기자를 맞이하는 것은 웃음 가득한 얼굴의 마을 주민이 아니라 웅장한 규모의 송전탑이었다.

마을 둘러싸고 20여기, 4가구당 송전탑 1기 쯤

80여호 200여명이 살고 있는 이 마을에 154kv와 345kv 송전탑만 20여기가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4가구당 1기 쯤인 셈.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을주민들이 간이 휴대용 전자파 측정장치(MAGPOS-11)를 이용해 전자파를 측정했다니 최고 8.7밀리가우스(mg)까지 나왔다.

스웨덴은 2mg, 네덜란드 2mg, 미국 국립방사선보호학회 2mg 등 국제적으로 전자파의 허용기준치는 2~4mg다. 여기에 비교하면 울촌 봉두마을은 국제 기준치의 2~4배를 넘고 있는 것.

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은 전자파 허용기준치를 4mg이하로 잡고 있다. 특히 국립환경연구원측은 0.9mg 전자파도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에용 박사는 "2~4mg이면 암이 발생 될 확률이 6배 높아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암 뇌출혈로 20여명 사망 및 투병

이 마을에서 20여년간 암과 뇌출혈로 사망하거나 투병 중인 사람만 20여명. 이들 대부분이 송전탑 인근이나 선로 바로 아랫부분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또 선로 인근에 위치한 소나 염소는 새끼를 배지 못하거나 임신을 하더라도 기형이 출산됐다. 생명력이 강한 벌도 유충이 녹아내리면서 더 이상 양봉을 할 수 없게 되기도 했다.

실제 주민들이 직접 측정한 김현수씨 발 위 쪽 부분은 전자파가 8.7mg가 측정됐다. 이 곳에서 양봉을 하던 박병욱 총만교회 목사는 폐암 판정을 받았다. 그가 기르던 양봉은 유충들이 녹아내리면서 더 이상 양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6.0mg가 측정된 뒤 모세 측사에서는 40마리던 소가 모두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이제는 20여마리만 남은 상황이다. 특히 위세 자신이 백혈병 판정으로 현재 서울 성모병원에서 투병 중이다.

폐암 판정 후 완치가 된 박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지도 않았고 가족간 병력도 없다. 그런데 폐암

악의 참사였어요. 이 사고가 터지자, 여수에 가서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환경운동연합의 명령을 받고 여수에 파견 나온 게 인연이 됐어요."

- 사고 수습후에 다시 서울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요?

"2년 동안 활동하고 나니, 서울에서 부르더라고요. 서울 중앙본부 조직공장을 맡아달라고 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내가 옮긴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무원과 산업단지 기업체 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환익 때문에 환경문제가 전국에 알려지고 피곤했는데 서울로 가버리면 편하겠구나'라며 말이지요.(웃음)그럴 수는 없겠다는 생각과 함께, 내가 할 일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서울로 복귀하는 것을 포기하고 여수에서 계속 활동하기로 마음먹었죠."

- 아주 가족까지 모시고 오셨다면데요? 가족들이 흔쾌히 동의하시던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가족과 함께 아주 이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환경운동은 그 지역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오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단한 거죠. 다행히 1992년부터 활동한 '여수환경시민의모임'이 1995년에 씨프린스호 사건을 계기로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하며 활동했지요. 그 결과 1996년에 지역에서는 최초로 전국적인 환경단체가 생기면서 완전히 터를 잡게 됐지요.지금도 가족들이 여수 내려온 것은 잘한 일이라고 격려해주니 다행이지요. 저도 여수가 정말 좋고요.(웃음)"산단이 그렇게 위험한 곳인가요?"

- 전국에 산단이 많은데, 왜 여수산단이유독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움직이는 화약고'라고 불리는가요?

"여수산단만 위험한 것은 아니에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단지는 다 위험해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 여수·울산·대산이지요. 그 중에서 여수가 화학물질을 제일 많이 취급하니까 확률상 사고가 날 가능성도 많고 실제로 사고도

판정을 받았다. 양봉을 하면서 고압선로 밑에서 일 한 다음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암이 나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마을 주민들을 확인한 결과 20여명에 달했다. 실재는 이 보다 많을 것이다"고 덧붙혔다.

하지만 한전측은 '아무 일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기한 사용재결이의신청 답변에서 "전자파 등의 피해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답했다.

실태조사 통해 원인과 대안 만들어야

그러나 주민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실제 주민들이 측정한 간이 측정기 상 국제 기준치를 넘은 곳에서 사람이 양에 걸리고 가족이 죽자 이제는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목사는 "고압선로로 인한 피해는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전측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며 "조만간 마을주민들이 단체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말 문제가 없다면 국가가 인정하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실태조사와 역학조사를 하자"며 "그 결과를 토대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목사는 "이 문제는 봉두마을의 문제가 아니다"며 "여수지역에 새로 41기의 송전탑이 들어 서게 된다. 마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다. 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 사회단체들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덧붙혔다. [출처 : 여수 넷통 2013년 6월 12일 박태환]

성명서
여수시 울촌면 흑비에 대한 진실을 밝혀라. 주민건강피해, 농작물피해,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 우려된다. 관계당국은 여수시 울촌면 소재지 부근 흑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진실을 밝혀라... 2013년 6월 12일. 여수환경운동연합



친환경 살림을 응원합니다!

폐식용유 버리지 마세요~
빨래비누로 교환해드립니다. ^^

튀김하고 남거나 오리, 삼겹살 먹으며 나오는 오일들,
하수구나 번기에 버리면서 양심과 고민 많으셨죠!!
음료용기에 폐오일을 모아 오시면
폐식용유(동물성오일)와 코코넛 오일로 만든
빨래비누로교환해 드립니다.
지구를 아끼는 작은 실천 함께 시작해요^^

- 1. 교환장소 :
a. 여수환경운동연합 - 신기동 20-9번지 2층/ 682-0610
b. 김혜진의자연주의 - 여서동 479 광주은행 건물 3층 / 010-7722-6370
c. 국보보이차 - 소호동 1197-1 / 010-3938-88585
2. 교환방법:
a. 가정용 폐오일(식용유, 동물성오일) 200ml당 세탁 비누(200g) 1개 즉시 교환

15년 경력에 150만원 받아...사명감으로 일하죠

[아름다운 여수, 아름다운 사람들③ 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집행위원]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도심골프장 반대' '여수신단환경안전 대책활동'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여수환경운동연합을 찾았다. 처음에는 정회선 공동의장 법기를 요청했는데 한사코 인터뷰를 고사하면서, 더 좋은 분이 계시다며 이문을 소개해줬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공동의장이신 진옥 스님으로부터는 "환경운동의 전문가"라는 칭찬을 들었고, 문갑태 사무국장으로부터는 "회원들과 한 약속은 꼭 지키는 아주 모범적인 활동가"라고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조환익 집행위원과의 인터뷰는 약간의 설렘으로 시작됐다. "조 선생님이지? 여수환경운동연합의 역사이자 현재이지." 녹색 슬리퍼로 채워진 신발장에서 신발을 꺼내 신고 들어간 사무실에서 위원님에 대해 묻자, 김혜진 집행위원은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서울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 실무를 보다가 씨프린스호 사건이 터지면서 여수에 파견돼 왔는데,그 뒤로 여수에 눌러 살면서 여수환경운동연합의 산파 역할을 했다는 것.



"여수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 조환익 집행위원 두 번째 인터뷰를 하던 날, "거의 다 와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문자를 받고 밖에서 기다리다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아름다운 그분을 만났다.

- 우리는 '인 서울(In Seoul)을 꿈꾸며 공부합니다. 그런 우리와는 달리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여수에 내려와서 아주 사신단던데, 그 이야기부터 듣고 싶어요.

"씨프린스호 사건이라고 들어보았는가 모르겠어요. 1995년 7월 23일에 여수 앞바다에서 LG칼텍스정유(현재 GS칼텍스)사의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침몰해가기를 5035톤이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죠. 사고 직후부터 퍼져나간 기름 파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끼고 있던 청정해역을 검은 파도가 치는 죽음의 현장으로 바꿔놨지요.국내 해양오염사고로는 최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 친구 중에 여수산단에 다니는 아버지들이 여럿 있었어요.산단 덕분에 생활을 한다는 얘기도. 하지만 산업단지가 있는 여수의 암 발병률이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다는 보도를 들으면 답답해요.

"여수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나 온난화 가스의 '작게는 90% 많게는 99%'를 산단에서 배출하니까 여수는 수치상으로 공해도시·오염도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수산단에서 1%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 여수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다행히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문제를 제기하면 정부나 기업은 물론 시에서도 '별로 심각하지 않은데 왜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런 분위기였지요. 하지만 요즘은 다들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분위기죠. 최근에 대림사고가 있던 했지만, 최근 10년은 과거의 30년보다 대규모 사고가 확실히 줄었죠."

"그돈을 받고 생활하신다고요?"

◀ 여수에 내린 흑비 2013년 6월 11일 첫가루가 섞인 검은 비가 울촌면 소재지 부근에 내렸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이 존재해야 할 이유이다.

- 위원님께서 여수국가산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 가까이 활동해 오셨는데, 크게 개선된 점이라면 무엇일 수 있을까요?

"여수산단 문제를 놓고 환경운동연합이 한 일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파이프 지상화 활동'이지요. 산단에는 지상화된 배관보다 땅속에 묻힌 지하 배관들이 더 많아요. 그 배관으로 물이나 소금 같은 물질이 흐르기도 하지만, 기름이나 화학물질 같은 유해물질이 흐르는 배관도 있지요.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조금만 유출돼도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하에 있으면엔만한 유출률로 알 수가 없어요.그래서 파이프 지상화 작업이 중요하지요. 최근에 지하에 있는 배관을 순차적으로 지상화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요."

- 정말 죄송한데요. 환경운동가로 상급을 하면 한 달에 얼마를 받으나요?

"(웃음) 그게 지역마다 달라요. 여수는 회원이 다른 곳에 비해 그나마 많은 편이예요. 그래서 여수는 처음에 70~80만 원으로 시작해서, 15년 경력이 되면 150만 원 정도 받아요. 아예 못 받는 지역에 비해서는 정말 감사하죠.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국 평균이 100만 원 정도나 될까 싶어요."

◀ 조환익 위원님과의 인터뷰 여수를 뛰어넘어 이 땅을 사랑하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분이였다.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마음을 표현할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이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이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업을이나 여수시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전화를 걸었다. 문갑태 사무국장도 통화했다. 그의 말을 듣고 몹시 부끄러워졌다. "그래도 그러면 안 돼요. 산단의 재정 후원을 받거나 시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 산단이나 여수시가 잘못된 일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힘들어요. 요즘 들어 회원 수도 많이 줄어 어렵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재정을 꾸려가는 게 정도입니다."

조환익. 명함에 "나는 기후천사가 되겠습니다"고 밝히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남들보다 여름에 조금 더 덥게, 겨울에 조금 더 춥게 산다"며어린이 없는 건 기본이고 자동차, 심지어 텔레비전도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그분을 추재하다 위원님에게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우리 또래의 그 친구는 어떻게 학교를 다닐까?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을 텐데...더 여쭈 보지도 못했다. 가슴이 먹먹했다. 아름다운 여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한 깊어졌다.

[출처 : 오마이뉴스 2013.06.26 사랑해여수(oyesys)]